

<http://doi.org/10.5253/kpac.2025.52.2>

근현대 전북 유학자 김택술의 명승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김미선**

차례

1. 머리말
2. 김택술의 명승 유람과 시문 창작
3. 문학적 형상화의 명승별 특징
 - 1) 화양동 : 송시열 경모(敬慕)에 초점 맞추기
 - 2) 금강산 : 유람 장소에 대한 적극적 관심 표출
 - 3) 지리산 : 공간·경험 확대 및 유람 인식 명확화
4.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김택술의 명승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 근현대 유학자 유람의 단면을 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김택술의 명승 유람과 시문 창작을 살펴보았다. 김택술은 1922년 화양동, 1930년 금강산, 1934년 지리산 유람을 떠났으며, 해당 유람에 대한 일기 <화양동유록>·<금강산유록>·<두류산유록>과 총 58수의 한시를 남겼다. 명승별 한시 수량은 화양동 6수, 금강산 20수, 지리산 32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문학적 형상화의 명승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화양동은 조선 후기 대학자 송시열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으로, <화양동유록>과 한시는 송시열 경모(敬慕)에 초점이 맞

* 이 논문은 2025년 2월 22일에 열린 “한국시가문화학회 제41회 정기 학술대회 - 호남 시가 문학의 미래와 전망”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추어져 있었다. 금강산은 한반도 제일의 명승으로, 금강산 유람 중에 김택술은 각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금강산유록>은 세 편의 유람 일기 중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리산은 호남과 영남에 아울러 자리한 산으로, 김택술은 지리산에 가는 길에 순창 훈몽재 등 인근 지역을 유람하고, 친척 방문과 성묘 등을 하여, <두류산유록> 속 공간 및 경험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유람을 통해 '지혜[智]'와 '어짚[仁]'을 보려 한다는 것을 한시에서 밝히고 있었다.

김택술 명승 유람 문학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택술의 명승 유람 문학은 조선시대 명승 유람의 전통이 근현대인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김택술의 명승 유람 문학은 근현대 다양한 유람 문학 작품을 발굴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김택술 명승 유람 문학은 일기와 한시가 모두 있어 유람 문학을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핵심어 : 김택술, 명승 유람, 『후창집』, 화양동, 금강산, 지리산

1. 머리말

유람(遊覽)은 오랜 기간 유학자들에게 공부의 수단이자 교유의 장이며 휴식의 시간이었다. 또 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후인들이 선인의 뜻을 배우고 기리는 장소로 여겨 적극적으로 찾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산·계곡·바다와 같은 산수(山水)를 유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찰·누정·고도(古都)·서원과 같은 인문적인 곳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유람은 더욱 성행하였고, 유람을 그림이나 문학으로 남겨 전해지는 작품들이 많다.

그렇다면 근현대에는 어땠을까? 근현대에는 '섬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전통적인 학문이 힘을 잃어가던 때였다. 전통적인 유학에 전념하였으나 바뀌어가는 세상을 살아야했던 근현대에 전북유학자 김택술(金澤述, 1884~1954)은 3차레 명승 유람을 떠났고, 이를 풍성한 문학으로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김택술의 명승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 근현대 유학자 유

람의 단면을 보고자 한다.

김택술의 자는 종현(鍾賢), 호는 후창(後滄), 본관은 부안(扶安)으로, 1884년 6월 6일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당대의 저명한 유학자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후창’이라는 호는 주자(朱子)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로 전우가 지어준 것이다. 전우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 받으며, 후학 교육에 힘쓰는 삶을 살다가 1954년 2월 18일에 세상을 떠났다. 정읍의 창동서원(滄東書院)에 배향되었다.

김택술이 평생 지은 글은 문집 『후창집(後滄集)』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는 1955년 아들 김형관(金炯觀)과 문인들에 의해 석인본으로 간행된 것으로,¹⁾ 본집 31권 15책, 속집 11권 5책, 합 42권 20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12에 서(書) 536편이, 권13~19에 잡저(雜著) 101편이 실려 있는 등 방대한 산문이 수록되어 있고, 권26~31에 한시 1,336수가 수록되어 있다. 속집에 있는 한시까지 합하면 한시만 약 1,500수에 이른다. 이중 권17의 잡저 하위에 화양동·금강산·지리산 유람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일기 3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6~28에 화양동·금강산·지리산 유람 때 지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김택술의 명승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²⁾ 이는 근현대 유람 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김택술 관련하여서는 그의 학문과 사상 및 문예론을 살핀 연구,³⁾

1) 『후창집』은 영인본과 번역본이 있으며, DB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김택술, 『後滄集』, 여강출판사, 1988; 김택술 저/황갑연 외 역, 『후창집』 1~8, 한국학호남진흥원, 2021~2023; 호남국학종합DB) ‘호남국학종합DB(<http://db.hiks.or.kr/>)’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으로, 본집 전체의 국역과 원문, 원문이미지가 탑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번역본 및 DB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번역의 경우 기존 번역을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였다.

2) 『후창집』에는 전주, 변산반도 등 다른 지역 유람에 대한 한시도 있다. 하지만 유람 과정을 담은 일기는 화양동·금강산·지리산에 대한 것만 있어서, 김택술이 이 3곳 유람을 중시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일기를 통해 유람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3곳 유람에 대한 문학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박순철, 「後滄 金澤述의 學問과 思想」, 『유교사상문화연구』 36, 한국유교학회, 2009; 박순철, 「後滄 金澤述의 文藝論研究」, 『중국학논총』 46, 한국중국문화학회, 2015.

역사인식을 살핀 연구,⁴⁾ 간재 전우의 성리설 계승을 살핀 연구,⁵⁾ 한시 및 일기를 살핀 연구가 있었다.⁶⁾ 그리고 지리산 유람록 중 하나로 김택술의 작품이 소개되거나,⁷⁾ 호남문집 소재 일기 중 일부로 일기가 언급되기도 하였다.⁸⁾ 『후창집』 속 방대한 작품 중 극히 일부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는 김택술 문학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김택술의 명승 유람과 시문 창작

명승(名勝)은 경치가 아름답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이름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경치가 아름다워 이름이 나기도 하지만, 대학자가 머물렀던 곳이기에도 이름이 나기도 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명승 유람을 꿈꿨고 실행하였다. 명승 유람 후 일기를 남긴 경우 해당 명승에 대한 인식, 유람의 동기, 구체적인 유람 과정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 일기가 여러 편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명승으로서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이 찾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
- 4) 김유빈,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 - 「관조선사」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엄찬영, 「「관조선사」에 나타난 김택술의 역사관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79, 한민족문화학회, 2022; 함영대,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과 대처 - 20세기 유교 지식인의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논리」, 『한문학보』 49, 우리한문학회, 2023.
- 5) 김근호, 「후창 김택술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공자학』 47, 한국공자학회, 2022; 신상후, 「간재 기질체정설의 계승과 발전 - 후창 김택술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6, 한국철학사연구회, 2023; 배제성, 「『생지위성』 해석을 통해 본 간재학과 성리설의 특징 - 간재 전우와 후창 김택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6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3.
- 6) 강동석, 「金澤述 詩에 있어서의 相應的 意象과 그 含意」, 『한국시가문화연구』 52,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김승룡, 「後倉 金澤述 한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론 - 擬古詩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5, 한국문학회, 2023; 김미선, 「근현대 전북 유학자 김택술의 일기와 그 의미」, 『전북학연구』 14, 전북학연구센터, 2025.
- 7)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6, 보고사, 2013; 박찬모, 「일제 강점기 지리산유람록에 대한 시론적 고찰」, 『남명학연구』 4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5; 강정화·황의열 편,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2016.
- 8)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다.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969편을 통해 명승지 유형을 살펴본 결과,⁹⁾ 산 관련 유람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기행일기가 전해지는 곳은 금강산, 두 번째가 지리산이었다. 그리고 선인들의 자취가 있는 곳을 중시하였는데, 대표적인 곳이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머물렀던 화양동이었다.

근현대 유학자인 김택술 또한 명승 유람을 소망하였으며, 3차례 유람을 실행하고 일기와 한시를 남겼다. 그가 유람했던 곳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많이 찾았던 화양동·금강산·지리산으로, 일기의 첫 부분을 통해 명승 유람에 대한 소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화양동(華陽洞)은 청주(淸州)의 동쪽 80리 【지금은 괴산(槐山) 지역이 되었다.】에 있는데 수석(水石)의 빼어나기가 나라 안에 알려졌다. 수석이 참으로 빼어나지만 명성이 이처럼 자자한 것은, 대개 만동묘(萬東廟)가 이곳에 있고 우암(尤菴) 선생의 유적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을 한번 유람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다. 임술년(1922) 3월에 호남의 유림에서 나를 대표인으로 추대해 만동묘의 향사(享祀) 여부를 가서 보게 되었다.¹⁰⁾

위는 화양동 유람을 기록한 일기의 첫 부분으로, 화양동에 대해 설명하고 1922년 만동묘의 향사 여부를 보기 위해 화양동에 가게 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수석(水石)은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를 이르는 말로, 위의 서술에 의하면 화양동은 경치가 빼어나지만 명성이 자자한 것은 만동묘가 있고, 우암 송시열의 유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송시열은 약 22년간 충북 괴산에 위치한 화양동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닦았다.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신종(神宗)과 그 손자 의종(毅宗)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송시열 사후인 1704년 송시열의 뜻에 따라 제자 권상하(權尙夏, 1641~

9) 김미선,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한민족어문학』 89, 한민족어문학회, 2020, 121~126쪽 참조.

10) 金澤述, 『後滄集』 卷17, <華陽洞遊錄>, “華陽洞在淸州東八十里【今爲槐山地】，水石之勝，聞于國中。水石固勝矣，名若是藉藉者，蓋以萬東廟在此也，尤菴遺蹟在此也。是所願一遊者，而未暇及焉。壬戌三月，自湖南儒林，推余爲代表人，往觀萬東廟享祀與否。”

1721)가 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동묘 또한 송시열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김택술은 이 화양동을 ‘한번 유람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실행하지 못하다가 1922년 만동묘의 향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가게 되었고, 유람하게 되었다.

1930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일기의 첫 부분에서 김택술은 산수 유람에 대한 선인들의 소망을 언급한 후, 중국 사람들도 금강산 유람을 원하는 것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 우암 송시열,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같은 대학자들이 금강산을 유람했음을 언급하고, 자신 또한 ‘평소에 산수를 즐기는 버릇이 있어 금강산을 한번 유람하는 것이 참으로 평소의 소원’이었다고 하였다. 1934년에 지리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일기의 첫 부분에서는 지리산의 웅장함, 삼신산 전설, 유가 선비들의 지리산 유람 소망 등을 언급하고, 1904년에 지리산을 유람하고자 하였으나 스승 간계 전우의 반대로 못가고 훗날 함께 지리산 유람을 가자고 약속했던 일을 서술하였다. 그리고는 ‘지리산을 한번 유람하는 것은 참으로 바라던 것’이라고 하고 유람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렇듯 화양동·금강산·지리산과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 명승에 대한 유람을 김택술은 간절히 소망하였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명승에 드디어 가게 된 김택술은 일기와 한시로 자신의 유람을 남겼다. 김택술의 문집 『후창집』 권1에는 7편의 일기가 편차되어 있으며,¹¹⁾ 마지막 3편이 바로 명승 유람을 담은 일기이다.¹²⁾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11) <금화집지록(金華執轡錄)>, <신문화록(莘門話錄)>, <매면암취찬정일록(拜勉菴崔贊政日記)>, <화도산양록(華島山樑錄)>, <화양동유록(華陽洞遊錄)>, <금강산유록(金剛山遊錄)>, <두류산유록(頭流山遊錄)>

12) 유람을 기록한 산문은 ‘유기(遊記)’, ‘유람록(遊覽錄)’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이 아닌 형식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여 ‘일기(日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기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워, 범주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을 기록한 것”이면 대체로 일기에 포함할 수 있다.”(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7쪽)는 정하영의 견해처럼, 일기의 범주를 넓게 보았다.

<표 1> 김택술의 명승 유람 일기

순번	명승	작품명	유람 시기	비고
1	화양동	화양동유록 (華陽洞遊錄)	1922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 유림 대표로 추대되어 만동묘의 향사 여부 알아보기 위해 화양동 찾음. - ‘우암 사당 → 우암 묘소 → 만동묘 → 화양서원 → 화양구곡’ 순서로 유람함. - 한시를 지었다는 서술은 있지만, 일기 내에 한시가 수록되지는 않음.
2	금강산	금강산유록 (金剛山遊錄)	1930년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원(趙濟元)이 금강산 유람을 가자고 청하여, 3월 그믐날 떠나기로 하였으나 비로 연기 됨. 4월 23일에 유람길에 올랐으며, 동행은 벗 박상구(朴瑛九)와 서종태(徐種台), 박상구의 아들 박근호(朴根浩)임. 유람을 청했던 조제원은 아버지 기일이 가까워 함께 가지 못함. - 일기 내에 김택술의 한시 19수, 묘소에 고하는 글 1편이 수록됨. 일기 내 한시 19수 중 15수는 문집의 한시 부분에도 수록됨. - 4월 24일 장안사 도착함. ‘망군대 → 정양사 → 만폭동 → 유점사 → 해금강 → 비봉폭포 → 구룡연폭포 → 만물상 → 비로봉’ 순서로 유람함. 5월 2일에 비로봉에 오르고 장안 여관에서 유숙, 다음날인 5월 3일 집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유람 여행 마무리됨.
3	지리산	두류산유록 (頭流山遊錄)	1934년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4년에 스승인 간재 전우를 모시고 남원에 갔을 때 지리산 유람을 하려 했으나 전우가 만류하여 다음을 기약함. 1934년 조제원이 지리산 유람을 가자고 청하여, 3월 19일 그와 함께 지리산 유람길에 오름. - 일기 내에 김택술의 한시 14수가 수록됨. 이 한시는 모두 문집의 한시 부분에도 수록됨. - 3월 20~21일 순창, 3월 22~27일 남원에서 인근을 유람하고 친척을 방문함. 3월 28일 지리산에 들어가며 3월 29일 천왕봉 오름. 이후 ‘칠불암 → 쌍계사 → 화엄사’를 유람하고 4월 5일 지리산에서 하산함. 4월 6일 출발, 4월 7일 귀가하며 유람 여행 마무리됨.

일기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글로, 완결된 구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다. 어느 한 날짜에 곧바로 일기가 시작되고 일상 생활이 쓰이다가 어느 한 날짜를 마지막으로 갑작스레 일기가 끝나기도 한다. 김택술 유람 일기의 경우 해당 명승에 가겠다는 소망과 의지가 있었고, 유람이 끝나면 하나의 중요 경험이 끝나기 때문에, 명승을 중심으로 일기가 완결된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 3편의 작품 모두 도입부에서 해당 명승에 대한 설명, 유람 여행의 동기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마무리 부분에서 유람한 명승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유람 공간이 넓지 않은 화양동의 경우 전개 부분에서 날짜를 구분하지 않고 경험 순서로 서술하였으며, 유람 공간이 넓고 여러 날을 여행한 금강산·지리산의 경우 날짜별로 구분하여 경험을 서술하였다.

일기 속에는 그날 자신이 지은 작품, 그날 본 다른 사람의 작품이 수록되기도 한다. <금강산유록>·<두류산유록>에 유람 중 김택술이 창작한 한시 19수·14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창작한 한시를 모두 일기에 기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택술의 유람 일기에는 실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화양동유록>에는 한시가 삽입되지 않았지만 송시열의 ‘<읍궁암>과 <암서재> 시에 차운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두류산유록>에는 황산대첩비를 보고 ‘장편고시 1수를 지었는데 글자 수가 많아 기록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다. 이는 일기 속에만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김택술이 이때 창작한 한시가 문집의 한시 부분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후창집』의 권26~31에 한시가 편차되어 있는데, 권26에 화양동 유람 한시가, 권27에 금강산 유람 한시가, 권28에 지리산 유람 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한시만 따로 편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한시들과 함께 있는데, 시 내용 및 제목을 통해 해당 명승 유람 한시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명승 유람 한시는 나란히 수록되어 있어 파악이 용이하였다.

<표 2> 『후창집』의 한시 부분에 수록된 화양동 유람 한시

순번	작품명	형식	일기 내 유무	비고
1	우암 선생의 묘를 찾아뵙고 【임술년(1922)○이하 동일하다.】 [拜尤菴先生墓 【壬戌○下同】]	7언절구	×	2수로 이루어짐.
2	화양동 유람[遊華陽洞]	7언율시	×	
3	만동묘(萬東廟)	7언율시	×	
4	읍궁암(泣弓巖)	5언절구	×	차운시
5	암서재(巖棲齋)	5언절구	×	차운시

『후창집』의 권26에 화양동 유람 한시는 모두 6수가 있었다. 유람 공간이 넓지 않고 유람 기간이 짧은 만큼, 창작한 작품 수가 적었으며, 일기에서 언급한 송시열의 <읍궁암>과 <암서재> 시에 차운한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람 공간도 넓고 유람 기간도 10일간·16일간으로 화양동에 비해 길었던 금강산·지리산 유람 때의 한시는 작품 수가 더 많았다.

<표 3> 『후창집』의 한시 부분에 수록된 금강산 유람 한시

순번	작품명	형식	일기 내 유무	비고
1	자정과 금강산을 유람하기로 약속하고[約子貞將遊金剛山]	7언율시	×	
2	금강산에 들어가 읊다[入金剛山吟]	7언율시	○	
3	표훈사에서 짓다[題表訓寺]	5언율시	○	
4	정양사 혈성루에서 정호음의 시를 생각하며 차운하다[正陽寺歇惺樓思鄭湖陰詩次韻]	7언절구	○	차운시
5	또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又次板上韻]	5언절구	○	차운시
6	신라 마의태자 유허를 보고 느낀 바 있어서[觀新羅麻衣太子遺墟有感]	7언율시	○	
7	만폭동(萬瀑洞)	7언절구	○	
8	유점사(楡岾寺)	7언율시	○	
9	개간령을 넘으며[踰開棧嶺]	7언율시	○	

순번	작품명	형식	일기 내 유무	비고
10	해금강가(海金剛歌)	7언고시	○	60구
11	만물상가(萬物相歌)	7언고시	○	37구
12	비로봉에 올라서[上昆盧峯]	7언율시	○	
13	구룡연(九龍淵)	5언율시	○	
14	비봉폭(飛鳳瀑)	5언율시	○	
15	자정이 준 시에 차운하다[次子貞贈韻]	7언율시	○	
16	금강산에서 날마다 회숙을 그리며[金剛日有懷 希淑]	5언율시	○	

『후창집』의 권27에 금강산 유람 한시는 모두 16수가 있었다. 이중 1번 한시 1수는 일기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한시 15수는 일기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일기에는 모두 19수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기 내 수록 한시 수량이 한시 부분보다 많다. 위 <표 3>은 권27 수록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일기 내 한시와 비교해 봤을 때 수록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2번 한시의 경우 유람이 마무리 되고 창작한 것으로, 일기에 수록된 마지막 한시인데, 권27에는 2번째에 배치되어 있다. 3번과 4번 한시의 경우 같은 날에 창작한 것이지만 일기로 보면 4번이 먼저 창작되었다. 아마도 문집의 권27을 정리한 사람이 일기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만 보고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순서는 달라졌지만, 금강산 유람을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금강산의 곳곳을 유람한 후, 금강산에서 족제(族弟)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 이 부분도 완결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후창집』의 한시 부분에 수록된 지리산 유람 한시

순번	작품명	형식	일기 내 유무	비고
1	생질 박진호에게 부치다[寄朴甥珍浩]	5언고시	×	16구
2	두류산에 가는 날 율곡 선생의 <증인>에 차운하다[往頭流日次栗谷先生贈人韻]	7언율시	×	차운시

순번	작품명	형식	일기 내 유무	비고
3	둔월치를 넘으며[踰屯月峙]	7언절구	×	
4	농암 선생의 묘소에 참배하고[拜躡巖先生墓]	7언율시	○	
5	순창의 길에서[淳昌途中]	5언절구	×	
6	훈몽재에서 감회가 있어[訓蒙齋有感]	5언고시	×	20구
7	대학암(大學巖)	5언율시	×	
8	귀래정에서 송운 강공의 시에 차운하다[歸來亭次松雲姜公韻]	5언율시	○	차운시
9	방씨의 사계정사에서 일재·남명·월사의 시에 차운하다[房氏沙溪精舍次一齋南冥月沙韻]	7언율시	○	차운시
10	유천의 사려재에 이르러서[到榆川思勵齋]	5언율시	×	
11	용두정에 올라 민단암의 시에 차운하다[上龍頭亭次閔丹巖韻]	7언율시	○	차운시
12	지당 마을을 지나다가 감회가 일어[過池塘里有感]	7언율시	○	
13	방군 【진】 에게 화답하다[和房君 【珍】]	7언절구	×	
14	광한루를 지나며[過廣漢樓]	7언율시	×	
15	목동에 이르러 족형 매산 어른 【양식】 에게 드리다[到木洞呈族兄晦山丈 【亮植】]	7언율시	×	
16	회산의 편액 뒤에 제하다[題晦山扁額後]	7언율시	×	
17	황산대첩비를 읽고 【갑술년(1934)】 [讀荒山大捷碑 【甲戌】]	7언고시	×	34구
18	산 가득한 늙은 전나무[滿山老檜]	7언절구	×	
19	천왕봉에 오르다[上天王峯]	5언율시	○	
20	천왕봉에서 삼월 그믐날에[天王峯值三月晦日]	7언절구	○	
21	몸이 마음을 꾸짖다[身責心]	5언절구	○	
22	마음이 몸에게 답하다[心答身]	5언절구	○	
23	구름 걷힌 고개에서 길을 잃고[撥雲時失路]	7언율시	×	
24	세이암(洗耳巖)	7언절구	○	
25	쌍계사에서 현관의 시에 차운하다[雙溪寺次板上韻]	7언율시	×	차운시
26	청학루의 시에 차운하다[次靑鶴樓韻]	7언절구	○	차운시
27	진감선사의 비석을 보고[觀眞鑑禪師碑]	7언고시	○	10구

순번	작품명	형식	일기 내 유무	비고
28	화개로 가는 도중에 일두의 시에 차운하다[花開道中次一蠹韻]	7언절구	○	차운시
29	화엄사에서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華嚴寺次板上韻]	7언율시	×	차운시
30	피서하는 서양 사람의 집을 지나며[過西洋人避暑室]	7언율시	×	
31	두류산을 다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觀盡頭流歸路]	7언율시	○	
32	정자경 【영식】 에게 주다[贈鄭子敬 【泳寔】]	7언절구	×	

『후창집』의 권28에 지리산 유람 한시는 모두 32수가 있었다. 일기 내에 수록된 14수가 모두 한시 부분에도 수록되어 있고, 수록 순서는 일기와 일치한다. 첫 번째 한시와 마지막 한시는 일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제목에 유람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첫 번째 한시 <생질 박진호에게 부치다[寄朴珍浩]>는 지리산 유람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고, 마지막 한시 <정자경 【영식】 에게 주다[贈鄭子敬 【泳寔】]>는 지리산 유람을 마친 후 함께 유람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담고 있어 지리산 유람 한시에 포함시켰다. 지리산 유람 한시도 유람 전 지리산 유람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하여 지리산을 향하는 과정에서 보고 만난 것들, 지리산 곳곳에 대한 유람을 표현하며, 유람이 끝난 후의 마음으로 마무리 되어, 완결된 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 『후창집』의 한시 부분과 일기 내의 한시 수량

순번	명승	『후창집』의 한시 부분에만 수록	『후창집』의 한시 부분과 일기 내에 모두 수록	일기 내에만 수록	총합
1	화양동	6수(5제)	-	-	6수
2	금강산	1수	15수	4수	20수
3	지리산	18수	14수	-	32수

3차례의 명승 유람에 대한 한시가 문집의 한시 부분과 일기 내에 수록되어 있되, 한 부분에만 수록 된 것, 두 부분에 모두 수록된 것이 섞여 있어 작품 수량에 혼란이 있다. 그래서 한시 수량을 위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때 김택술의 화양동 유람 한시는 6수, 금강산 유람 한시는 20수, 지리산 유람 한시는 32수이며, 세 명승에 대한 유람 한시는 총 58수이다. 3장에서는 화양동·금강산·지리산에 대한 3편의 유람 일기와 58수의 한시를 대상으로, 문학적 형상화의 명승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문학적 형상화의 명승별 특징

1) 화양동 : 송시열 경모(敬慕)에 초점 맞추기

화양동이 조선시대에 중요한 명승으로 자리 잡은 것은 조선후기 대학자 송시열의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화양동 유람을 기록한 일기는 8편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1765년 이후의 작품이었다.¹³⁾ 1689년 송시열이 사망하였고, 이후 1696년에 화양서원이, 1704년에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그런 다음에 화양동의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곳을 명승으로 여기고 찾게 된 것이다.¹⁴⁾ 김택술은 만동묘의 향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화양동을 찾았으나, 송시열의 자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전부터 유람하고 싶어 했다. 화양

13) 강정환(姜鼎煥, 1741~1816)의 <유화양동기(遊華陽洞記)>(1765년 3월), 정윤교(鄭允喬, 1733~1821)의 <유화양록(遊華陽錄)>(1793년 9월), 박정일(朴楨一, 1775~1834)의 <유화양동기(遊華陽洞記)>(1825년 3월), 최일휴(崔日休, 1818~1879)의 <과화양원기(過華陽院記)>(미상), 이상수(李象秀, 1820~1882)의 <화양동유기(華陽洞遊記)>(1856년), 김훈(金勳, 1836~1910)의 <화양록(華陽錄)>(1876년 9~10월), 허만박(許萬璞, 1866~1917)의 <유화양록(遊華陽錄)>(1898년 여름),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유화양제명승기(遊華陽諸名勝記)>(1902년 3월)

14) 이와 관련 임근실은 “화양서원, 만동묘, 화양구곡은 송시열의 존주대의(尊周大義)를 시각 화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보았다.(임근실, 「조선후기 華陽書院의 건립과 『華陽誌』 편찬의 의미」, 『한국서원학회』 17, 한국서원학회, 2023, 334쪽)

동에 도착한 직후 일제의 규제 때문에 향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들었지만, 바로 돌아오지 않고 화양동 곳곳을 유람하며, 이때의 일기와 한시는 송시열 경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을에 우암(尤菴) 선생의 사당이 있고 마을 뒤에는 또 우암 선생의 묘소가 있기에, 종손인 송철호(宋哲鎬)를 방문하여 그의 인도를 받아 사당에 들어가 배례(拜禮)를 행하고 영정을 봉심하였는데 연전(年前)에 본 대로사본(大老祠本)과 흡사하였다. 이는 대개 매우 늙은 모습을 그린 것인데 영채(英彩)가 오히려 사람을 쓰았다. 봉심한 뒤에 주인이 주안상을 마련하여 대접해 주었는데 예(禮)가 공손하고 음식물이 푸짐하며 매우 정성스러웠다. 이윽고 또 우옹(尤翁)의 묘소에 나아가 절하였는데, 묘소는 응봉(鷹峯) 아래에 있으며 기세가 자못 웅장하였다.¹⁵⁾

萬世尊攘思孔筆	만세토록 존왕양이와 공필을 생각하여
一生心法自朱門	평생 마음의 법을 주자로 말미암았지
腥風羶雨今天下	오늘날 천하는 비린내 나는 풍우로 가득하니
安得先生起九原	어찌 선생께서 구천에서 일어날 수 있으랴 ¹⁶⁾

위의 산문 부분은 <화양동유록> 중 향사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송시열의 사당과 묘소에 찾아간 일을 서술한 부분이다. 그리고 한시는 『후창집』 권26에 수록된 2수로 이루어진 <우암 선생의 묘를 찾아뵙고 【임술년(1922)○이하 동일하다.】 【拜尤菴先生墓 【壬戌○下同】】>의 첫 수이다. 성리학자로서 평생 학문을 연마한 송시열에 대한 경모가 시 속에 깊게 담겨 있다. 김택술이 화양동에서 가장 먼저 송시열의 사당을 찾고, 이어 묘소에 나가 절을 한 것도, 존경하고 사모하는 경모의 마음을 표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만동묘, 화양서원을 방문한 후 화양구곡을 유람한다.

15) 金澤述, 『後滄集』卷17, <輶馬洞遊錄>, “里有尤菴祠堂, 里後又有尤菴墓, 訪其宗孫宋哲鎬, 得其引導, 入祠堂行拜禮, 奉審景頓, 與年前所瞻大老祠本恰似. 蓋極老境所寫, 而英彩猶射人矣. 奉審後, 主人具酒案見待, 禮恭物豐, 極其殷勤. 既又進拜尤翁墓, 墓在鷹峯下, 氣勢頗雄.”

16) 金澤述, 『後滄集』卷26, <拜尤菴先生墓 【壬戌○下同】>.

수십 보를 올라가 읍궁암(泣弓巖)에 이르렀는데, 우옹이 효종(孝宗)의 기일(忌日)을 당할 때마다 이 바위에서 통곡하고 형호(荊湖)의 고사를 인용하여 ‘읍궁’으로 이름을 지었다. 작은 빗돌에 우암 선생의 시를 새겨 놓았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이날이 무슨 날이던가 / 외로운 충정을 상제가 굽어보리라 / 이른 새벽에 통곡하고 나서 / 무릎 안고 다시 길게 읊노라”

바위의 10여 곳이 자연스레 움푹 파였는데 점점이 눈물을 떨군 흔적과 같아 기이하니, 그 당시 이 바위에서 곡할 때에 혹 이것에서 이름을 취한 것일까?¹⁷⁾

위는 화양구곡 중 읍궁암 유람을 서술한 부분이다. 화양구곡은 경천벽(擎天壁), 운영담(雲影潭), 읍궁암(泣弓巖), 금사담(金沙潭), 첨성대(瞻星臺), 능운대(凌雲臺), 와룡암(臥龍巖), 학소대(鶴巢臺), 파곳(巴串) 등 9가지 뛰어난 경치이다. 조선의 구곡문화는 주자의 ‘무이구곡’ 수용으로 시작되고 발달하였으며, 주자를 숭상하는 성리학자들이 ‘무이구곡’의 이상을 조선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¹⁸⁾ 화양구곡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김택술은 화양구곡 서술 첫 부분에서 이 구곡의 이름을 송시열이 지은 것이라 하고, 경천벽과 운영담 유람을 차례대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읍궁암에서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송시열이 효종의 기일에 바위에서 통곡한 일을 기록하였으며, 바위에 새겨진 송시열의 시를 일기에 수록하고, 이 시에 대한 차운시를 지었다.

大老當年淚	나이 많은 노인 그해 눈물 흘리니
分明天日臨	분명 임금께서도 오셨으리라
蒼涼一片石	스산한 한 조각의 바위가
堪作後人吟	후인들의 시가 될 수 있었네 ¹⁹⁾

17) 金澤述, 『後滄集』 卷17, <華陽洞遊錄>, “上數十步, 得泣弓巖, 尤翁每當孝廟諱辰, 痛哭此巖, 引荊湖故事, 名以泣弓, 有小碑刻尤菴詩, 詩曰, 此日知何日, 孤衷上帝臨, 侵晨痛哭後, 抱膝更長吟, 巖上十餘處, 天然成坎, 點點若落淚痕, 可異也, 當日之哭於此巖, 或取於此歟”

18) 이상근, 「조선시대 士大夫의 山水遊觀과 九曲遊覽」, 『영남학』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373쪽.

19) 金澤述, 『後滄集』 卷26, <泣弓巖>.

위는 『후창집』 권26에 수록된 <읍궁암(泣弓巖)>이라는 시이다. 송시열의 운자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시의 내용도 송시열이 눈물 흘린 당시 상황 및 이를 기리는 후인들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택술은 화양구곡을 모두 유람한 후 자신의 의론을 종합하여 개진하는데, 이때에도 이곳보다 수석이 아름다운 곳은 있겠지만 명성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화양구곡이 이름난 것은 ‘사람’, 곧 송시열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2) 금강산 : 유람 장소에 대한 적극적 관심 표출

금강산은 한반도 제일의 명승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사람이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라고 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으며, 김택술도 <금강산유록>에서 이 말을 언급하였다. 금강산은 그 빼어난 풍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조선시대 가장 많은 기행일기가 남아 있는 산이기도 하다.²⁰⁾

김택술은 금강산 유람을 소망하였으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노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런데 1930년 봄에 조계원으로부터 금강산에 함께 가자는 청을 듣고, 세상이 변해도 산수는 그 좋음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옛사람 중에도 세상 일에 상심하는 사람이 산수에 자취를 붙인 경우가 있으니 금강산 여행이 이치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30년 4월 23일에 금강산 유람길에 오른 김택술은 금강산의 여러 유람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20) 제목에 산 이름이 명시된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조사한 결과 금강산이 73편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이 56편, 청량산이 40편, 가야산이 29편으로 그 뒤를 이어, 금강산 유람이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김미선, 앞의 논문, 125쪽) 사대부들의 유람기를 조사·연구한 정치영은 ‘사대부들이 유람한 산’을 소개하면서 ‘조선 제일의 명승지, 금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192쪽) 경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에서는 금강산 유람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강산 유람록을 모아 번역한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 유람록』 1~10, 민속원, 2016~2019)

<표 6> 김택술이 한시를 남긴 금강산 유람 장소

순번	날짜	유람 장소	비고
1	1930. 4. 25	망군대, 혈성루, 표훈사	- 혈성루는 정양사 내에 있음.
2	1930. 4. 26	만폭동, 진주담	- 진주담은 만폭동 내에 있음.
3	1930. 4. 27	유점사, 개잔령, 삼일포	
4	1930. 4. 28	해금강	- 60구로 이루어짐.
5	1930. 4. 29	비봉폭포, 구룡연폭포	
6	1930. 5. 1	만물상	- 37구로 이루어짐.
7	1930. 5. 2	비로봉	- 이 날짜 일기에 마의태자의 묘소에 고한 글 수록됨.

유람을 하면서 어떤 장소에 대해 한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그곳이 그만큼 마음에 감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위의 <표 6>은 김택술이 한시를 남긴 금강산 유람 장소를 표시한 것으로, 이 유람 장소들에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²¹⁾ 해금강에서 지은 <해금강가(海金剛歌)>는 60구로 이루어진 7언고시로, 김택술의 유람 한시 중 가장 장편이다. 두 번째로 긴 작품이 만물상에 대해 지은 <만물상가(萬物相歌)>로 37구로 이루어진 7언고시이다. 이러한 한시가 남아 있는 유람 장소에 대한 일기 부분을 살펴보면, 산문 서술이 풍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류담 위 서남쪽은 바위 언덕이 가파르는데 그 위에 편평한 바위가 사방으로 둘러싸고 무너진 성이 있으니, 이곳이 신라 태자 【스님이 마의태자(麻衣太子)라고 하였다.】가 살던 곳이다. 흰 표목(標木)을 세워 ‘태자성(太子城)’ 3글자를 썼고, 바위에는 ‘동경의열 북지영풍(東京義烈北地英風)’ 8글자를 새겼는데 매월당(梅月堂) 김공(金公)이 쓴 것이라고 한다. 그 곁에는 김광국(金光國)·김신국(金薰國) 등 여러 김씨의 제명(題名)이 있다. 황류담을 돌아서 건너 남쪽으로 조금 가니 길 왼편의 넓고 편평한 곳에 또한 표목이 있고 ‘신라고적(新羅古迹)’ 4글자가 쓰여 있는데

21) 진주담은 만폭동 내에 있으나 만폭동에 대한 시, 진주담에 대한 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에 따로 넣었다. 이외의 한시는 유람 장소에 대한 시가 아니라, 여행을 같이 못한 벗에게 금강산 유람에 대해 언급한 시이거나 유람 전체를 아울러 본 시이다.

이곳이 태자 궁실의 유지(遺址)이고 산중 사람이 말한 대궐터이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10리에 망군대(望軍臺)가 있다. 태자가 아버지에게 간(諫)하여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으로 도망하여 들어왔으며, 그때 군사 삼억(三億) 명을 거느리고서 고려를 정벌하고자 산 아래에 주둔하고 이 망군대에 올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으며 골짜기 또한 ‘삼억’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²²⁾

위는 <금강산유록> 1930년 4월 25일 일기의 일부이다. 김택술은 전날인 4월 24일에 금강산 장안사 어귀에 도착하였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유람을 시작하였다. 이날 먼저 장안사·명경대·황류담을 유람했는데, 한시를 짓지는 않았고 보게 된 풍경과 두보의 시를 외운 일, 황류담에 부호가의 여자들이 와서 동전을 던져 황천 가는 날의 노자로 제공한다는 사실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마의태자와 관련한 유허(遺墟)를 보고 서술을 하고 있다.

먼저 금강산에 있는 유허의 모습을 설명하고, 망군대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적고 있다. 마의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로, 신라가 고려에 항복한 후 금강산으로 들어가 삼베옷을 입고 푸성귀를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는 일화가 있다. 이 일화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 있으며,²³⁾ 김택술은 인용한 부분 다음에서 『삼국사기』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우리 『김씨보』’, 즉 부안 김씨의 족보에 마의태자의 이름과 그 자손이 부안 김씨가 되었다고 기록된 사실을 서술하고, 현재 나라가 망한 뒤의 상황이 마의태자의 시대와 똑같다고 하면서 시를 지었다.

22) 金澤述, 『後滄集』 卷17, <金剛山遊錄>, “潭上西南, 石岸陡絕, 上有平巖四圍, 有頽城, 是爲新羅太子【僧云麻衣太子】所居處, 立白標木, 書太子城三字, 巖上刻東京義烈北地英風八字, 云是梅月堂金公所題, 其傍有金光國金靈國諸金氏題名, 回渡黃流潭, 南行少許, 路左寬平處, 亦有標木, 書新羅古迹四字, 是爲太子宮室遺址, 山中人稱爲大闕址, 此南十里, 有望軍臺, 太子諫父不聽, 故逃入此山, 時率軍三億, 欲伐高麗, 留陣山下, 登此臺而望之, 故得是名, 洞亦有三億名云.”

23) 『삼국사기』 중 <신라본기>에 실려 있다.(김부식 저/이병도 역,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2004, 317쪽 참조)

泣諫歸來入此逃	울며 간하고 돌아와 이곳에 들어 숨었는데
至今遺跡未全消	지금까지 유적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구나
東京王氣千年盡	동경의 왕의 기운 천 년 만에 다했으나
北地英風萬丈高	북지의 영웅의 기풍은 만 장이나 높네
坐草衣麻心獨苦	삼베옷 입고 풀에 앉아 홀로 고심하고
望軍築壘力徒勞	보루 쌓고 군영 바라보며 헛수고했구나
幾多行客迫傷感	얼마나 많은 길손들이 추모하며 슬퍼했나
一倍切切後裔苗	후손은 갑절이나 깊은 수심에 잠기네 ²⁴⁾

위 시는 『후창집』 권27에 수록된 <신라 마의태자 유허를 보고 느낀 바 있어서[觀新羅麻衣太子遺墟有感]>이다. 일기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일기에는 2구의 마지막 글자가 ‘소(銷)’로 된 것만 다르다. 시 3구의 ‘동경(東京)’은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를 가리키며, 4구의 ‘북지(北地)’는 촉한(蜀漢) 후주(後主)의 아들 북지왕(北地王) 유심(劉諶)을 가리킨다. 촉한이 망하자 자결한 것이 마의태자의 행적과 통하는 면이 있다. 일기의 서술이 있기 때문에 금강산의 바위에 새겨진 ‘동경의열 북지영풍(東京義烈 北地英風)’을 시어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 구의 ‘후손’이 같은 부안 김씨 후손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기에서는 시를 지은 다음에 망군대로 향하는 과정이 서술된다. 김택술은 망군대에 직접 오르고 싶었으나 길이 험준하여 일행들이 꺼리고, 망군대 위에는 텅 비어 한 물건도 없다 하므로,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망군대 유람을 마무리하였다. 마의태자 유허를 보고, 마의태자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적고, 시를 짓고, 망군대를 찾아가기까지, 김택술의 적극적인 관심이 일기 속에 담겨 있다. 김택술은 이날 이후 비로봉 근처에 마의태자 무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곳을 방문할 생각으로 마의태자의 묘소에 고하는 글을 지었다. 1930년 5월 2일에 비로봉에 오르고, 마의태자 묘소를 찾아가고 싶었으나 숲이 우거져

24) 金澤述, 『後滄集』 卷27, <觀新羅麻衣太子遺墟有感>.

가지 못하고 일기에 묘소에 고하는 글 전문을 기록하였다. 적극적으로 유람하는 그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에는 다양한 절이 있으며, 그곳에는 이름난 승려들이 있다. 김택술은 절을 유람할 때 승려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대화한 내용을 일기 속에 풍부하게 기록하였다. 아래는 <금강산유록> 1930년 4월 27일 일기 중 일부로, 유점사에서 승려가 말한 내용이다.

옛날에 천축(天竺) 사람이 금불(金佛) 53구(軀)를 주조하고는 석반(石盤)에 실어 인연을 따라 가다가 그치도록 하였습니다. 도중에 월지국(月支國)을 지나자 국왕이 자기 나라에 불안하려고 하니, 부처가 왕의 꿈속에 말하기를 ‘내가 갈 곳이 있으니 너는 나를 내버려 두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 놓으니 부처가 우리나라 고성(高城) 포구에서 멈추었고 군수 노춘(盧春)이 부처를 맞이하여 이곳에 들여 놓았습니다.

이곳에 용소(龍沼)가 있었는데 부처가 용을 내몰자 용이 화가 나서 느릅나무 뿌리를 뽑아 지상에 거꾸로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처가 느릅나무 뿌리 위에 나란히 서자 용이 두려워하여 달아나니, 노춘이 마침내 용소를 메우고 절을 지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서 있었던 느릅나무 뿌리가 그대로 불전 안에 있었으니, 절 이름을 유점사(楡岾寺)라로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 번의 화재로 인해 나무에 조각하여 바꾸었습니다. 절을 창건한 시기는 우리나라로는 신라 때이고 중국으로는 서한(西漢) 때인데 동한(東漢)의 영평(永平) 때 보다 거의 100년이나 앞서니, 이른바 ‘동양제일가람’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²⁵⁾

김택술은 전날인 1930년 4월 26일 저녁 유점사에 도착하였고, 이때에도 승려들과 금강산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일기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25) 金澤述, 『後滄集』 卷17, <金剛山遊錄>, “昔天竺人鑄金佛五十三, 載石盤, 使隨緣而止. 路過月支國, 國王欲奉安于其國, 佛告王夢曰, 我有去處, 爾其舍我. 王反佛于故處, 佛止於我國高城浦口, 郡守盧春迎佛入此. 此有龍沼, 佛驅龍, 龍怒拔楡根, 倒置地上. 諸佛齊立于楡根上, 龍恐懼而逃, 春遂填沼作寺. 諸佛所立楡根, 仍在殿中, 寺名楡岾者以此. 後因屢度回祿, 刻木改之. 卽寺之時, 在東國爲新羅, 在中國爲西漢, 而先於東漢永平時, 且近百年, 所謂東洋第一伽藍者, 此也.”

인 4월 27일 아침 절 안을 구경하면서 ‘동양제일가람(東洋第一伽藍)’이라는 편액과 오십삼불(五十三佛)을 보았다. 오십삼불은 나무를 조각하여 느릅나무 뿌리를 거꾸로 세운 형상으로 만들고 뿌리 위에 부처를 안치한 특이한 형태였다. 김택술은 구경한 것을 서술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승려가 그에 대해 설명한 말을 모두 일기에 남겼다. 승려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유람한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 것이다. 이후에도 승려와의 대화가 더 기록되고, 보장각(寶藏閣)으로 들어가 광해군이 하사한 물품 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置刹東洋此最先
 楡根倒插正茫然
 萬千峯裏占楓岳
 五十佛身來石船
 歷代賞恩多寶品
 滿樓題詠或前賢
 再難人世清奇地
 付與緇林獨管專

동양에 사찰을 둔 건 이곳이 가장 먼저이니
 느릅 뿌리 거꾸로 꽂힌 일 정히 아득하네
 만 천의 봉우리들 속에 풍악산을 차지하여
 오십 불신이 돌배를 타고 건너 왔다네
 역대로 상을 받아 보배로운 물품이 많고
 누대에 가득한 제영은 혹 선현의 작품이리
 다시는 인간 세상의 맑고 기이한 곳을
 불가에게 내주어 홀로 관할케 함은 어려우리²⁶⁾

위는 『후창집』 권27에 수록된 <유점사(楡岾寺)>이다. 이는 일기와 한시 부분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두 부분의 모든 글자가 일치한다. 김택술의 유점사 유람은 유점사를 나와 멀리서 산과 절의 모습을 보면서 한시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동양의 첫 번째 사찰, 느릅나무 뿌리가 거꾸로 꽂힌 것, 오십 개가 넘는 불상이 배를 타고 온 것을 제시한 1~4구는 승려에게 들은 것을 압축한 것이다. 그리고 5~6구는 유점사에서 본 것, 7~8구는 불가에 대한 김택술의 생각을 담고 있다.

금강산 유람 중에 김택술은 각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보게 된 풍경을 묘사하고, 승려 등에게 적극적으로 묻고 듣게 된 것을 자세히 기록

26) 金澤述, 『後滄集』 卷27, <楡岾寺>.

하며, 때로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예컨대, 만폭동에서는 바위에 이름 새긴 것이 많은 것을 보고, 혼란한 때에 드러난 이름도 숨기려 하는데 이름을 억지로 드러낸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펼쳤다. 그리하여 <금강산유록>은 세 편의 유람 일기 중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강산 유람 기간은 10일, 지리산 유람 기간은 16일이며, 금강산 유람 한시는 20수, 지리산 유람 한시는 32수이다. 지리산 유람 기간이 더 길고 한시도 금강산 유람 때보다 많지만, 『후창집』 수록 면수는 <금강산유록>이 32면, <두류산유록>이 14면으로, <금강산유록>이 2배 이상 많다. 58수의 유람 한시 중 가장 장편인 시 또한 금강산 유람 때 지은 <해금강가>이다. 금강산의 각 유람 장소에 대한 김택술의 적극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 지리산 : 공간·경험 확대 및 유람 인식 명확화

지리산은 호남과 영남에 아울러 자리한 산으로,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그리고 경남 산청·함양·하동이 지리산 소재지이다. 전북 정읍에 살았던 김택술은 남원으로 가 지리산에 오르는데, 그에게 있어 지리산은 화양동·금강산보다 가까운 곳이었다. 그런데 집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에 도착하기까지는 가장 많은 시일이 걸렸다. 김택술은 화양동에 갈 때 차를 타고 갔다가 도보로 이동하였고, 금강산에 갈 때는 기차·전차·자동차를 이용해 전북 정읍에서 강원도 금강산까지 1박 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리산에 갈 때는 집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주맥(主脈)인 여원치에 도착하기까지 9박 10일이 걸렸다. 지리산에 가는 길에 인근 지역을 유람하고, 친척 및 지인을 방문하며, 성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표 7> 김택술의 지리산 유람 과정과 한시

순번	구분	일기의 날짜	한시 부분의 시	한시 남긴 유람 장소
1	유람 전		<표 4>의 1~2	
2	정읍	1934. 3. 19	<표 4>의 3	

순번	구분	일기의 날짜	한시 부분의 시	한시 남긴 유람 장소
3	순창	1934. 3. 20~3. 21	<표 4>의 4~8	훈몽재, 대학암, 귀래정
4	남원	1934. 3. 22~3. 27	<표 4>의 9~16	사계정사, 사려재, 용두정, 광한루
5	지리산 유람	1934. 3. 28~4. 4	<표 4>의 17~30	황산대첩비, 천왕봉, 세이암, 쌍계사, 청학루, 진감석사비, 화엄사
6	유람 후	1934. 4. 5~4. 7	<표 4>의 31~32	

위의 <표 7>은 김택술의 지리산 유람 과정과 한시를 정리한 것이다. 1934년 3월 19일 정읍에서 출발한 김택술은 3월 20~21일 순창에 머무르고, 3월 22~27일 남원에 머무른다. 그리하여 <표 4>에 제시한 32편의 지리산 유람 한시 중 절반에 이르는 16편이 지리산에 오르기 전에 창작된 것이다. 이는 <두류산 유록>의 공간이 지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만큼 경험 또한 다양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은 지리산을 향할 때 김택술이 지나간 지역을 간략히 표시한 것으로, 정읍에서 남원으로 갈 때 순창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기를 통해 볼 때 1934년 3월 19일 정읍에서 출발한 김택술은 3월 20일 순창 적곡(赤谷)에 가서 방조(傍祖)인 농암(鵝巖) 김택삼(金宅三, 1619~1703)의 묘소에 참배하고, 바위의 송시열 글씨를 보고 한시를 1



<그림 1> 김택술이 지리산으로 향할 때 지나간 지역²⁷⁾

27)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의 지도에 지역 필자 표시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4000000)

수 지었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순천의 귀래정에 올라, 귀래정을 만든 신말주(申末舟, 1429~1503)와 그 형 신숙주(申叔舟, 1417~1475)를 떠올리며 현판의 시에 차운하였다. 3월 20일과 21일 일기에는 각각 1수씩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후창집』 권28 한시 부분에는 순창의 훈몽재에서 지은 한시 2수가 더 수록되어 있다.

一片江干石	강가에 있는 한 조각의 돌
爭傳號大學	대학암이라 부르며 앞다투어 전했네
不有河松跡	하서와 송강의 자취가 없었다면
過者曾不目	지나가는 사람도 눈길을 주지 않았으니
信知賢人過	참으로 알겠네 현인이 지나가면
精彩留草木	그 정체가 풀과 나무에 남는다는 것을
勸君須奮發	그대에게 권하노니 반드시 분발하여
千載追芳躅	천년토록 향기로운 자취 따를지어다 ²⁸⁾

순창의 훈몽재에서 창작한 시는 20구로 이루어진 5언고시 <훈몽재에서 감회
가 있어[訓蒙齋有感]>와 5언율시 <대학암(大學巖)>이다. 위의 시는 그중 <대
학암>이다. 훈몽재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순창 쌍치면에
지은 강학당이고, 이곳 앞에 바위 대학암이 있다. 대학암에서 송강(松江) 정철
(鄭澈, 1536~1593) 등이 『대학(大學)』을 배웠고, 바위에 새겨진 글씨 ‘대학암
(大學巖)’을 정철이 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대학암’이라는 바위가 하서 김인
후와 송강 정철의 자취로 인해 이름나게 되었다는 판단이 시 속에 담겨 있다.

훈몽재는 순창의 적곡과 가까우며, 이곳을 지나 순창 귀래정으로 가면 남원에
가까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순창의 적곡에서 귀래정으로 가기 전에 훈몽재
를 유람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유람 한시는 『후창집』 권28 한시 부분에
수록된 것이 일기 내에 수록된 것보다 많으며, 두 부분에 모두 있는 한시의 경

28) 金澤述, 『後滄集』卷28, <大學巖>.

우 수록 순서가 일치한다. 한시 부분의 <농암 선생의 묘소에 참배하고[拜巖先生墓]>와 <귀래정에서 송운 강공의 시에 차운하다[歸來亭次松雲姜公韻]> 사이에 훈몽재에서 지은 2수가 수록되어 있어, ‘적곡 → 훈몽재 → 귀래정’ 순서로 이동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

김택술은 1934년 3월 22일 남원 영천면 유천(楡川)에 도착하였고, 다음날인 3월 23일에 사계정사(沙溪精舍)와 용두정(龍頭亭)을 유람하였다. 이후 김택술은 집안 사람이 사는 남원의 목동(木洞) 마을과 내기(內基) 마을에 가서 친척들을 방문하고, 선조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그리고 3월 28일 지리산 여원치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지리산 유람에 들어갔다. 지리산에 도착하기 이전 부분이 공간 및 경험의 확대를 가져왔다면, 본격적인 지리산 유람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유람 일기의 면모를 보인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감흥이 일었을 때는 한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택술의 이전 화양동·금강산 유람 때와 비교했을 때, ‘유람’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쓰러져 누웠는데 너무 피곤하여 온몸이 매를 맞은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었다. 마침내 스스로 웃으며 말하기를, “심하구나, 너의 산수를 좋아함이여!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였는가? 번거로운 일을 자신이 만들었으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라.”라고 하였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이 시 한 수를 지었다.

誰言壯觀好	누가 장엄한 경관 좋다고 했던가
身苦更無比	몸 고생이야 다시 비할 곳 없네
堪笑靈臺主	우습구나 영대의 주인이여
自求快一時	스스로 한때의 상쾌함 구했구나

이 시는 몸이 마음을 책망한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非求快一時	한때의 상쾌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要見智仁術	지혜와 어질 보려 하였네

我苟淨私塵 내 진실로 사욕과 속됨을 씻어냈으니
從知你亦逸 이에 너 또한 편안해짐을 알겠네

이 시는 마음이 몸에 대답한 것이다.²⁹⁾

위는 <두류산유록> 1934년 3월 29일 일기의 일부이다. 이날 김택술은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 올랐다. 천왕봉에서 멀리 호남과 영남의 풍경을 보고, 금강산 비로봉과 비교하며, 2수의 시를 짓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며 천왕봉 유람을 즐겼다. 그리고 금방 어두워질까 걱정되어 급히 하산을 하였다. 위는 저녁밥을 먹은 후의 상황을 서술한 그날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온 몸이 때를 맞은 것처럼 피곤한 상황에서, 고생한 몸이 마음을 책망하고, 마음이 이에 대답하는 형식의 2수의 시를 지었다. 마음이 몸에 답한 시에서 유람이 상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智]와 ‘어짚[仁]’을 보려 한 것이며, 사욕과 먼지를 씻어 내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위의 두 시는 『후창집』 권28에 <몸이 마음을 꾸짖다[身責心]>, <마음이 몸에게 답하다[心答身]>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지리산 유람 때 지은 다른 시에도 유람에 대한 인식이 보인다. 유람을 떠나기 전에 쓴 1번째 한시 <생질 박진호에게 부치다[寄朴珍浩]>는 16구로 이루어진 5언고시이다. 이 중 1~4구에서 “두류산의 천왕봉이 / 하늘로 우뚝 솟구치니 / 내가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 속세의 마음 시원히 씻고 싶네[頭流天王峯 聳出九霄中 我欲陟其巔 豁然盪塵胸]”라 하여, 지리산에 올라 속세의 마음을 씻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리산 유람을 마치고 전체를 돌아보며 쓴 31번째 한시 <두류산을 다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觀盡頭流歸路]>에서 “올라 보고 어짚과 지혜를 알고자 했으나 / 보아도 보지 않은 것 같았으니 또한 부끄럽구나[登覽要知仁智術

29) 金澤述, 『後滄集』 卷17, <頭流山遊錄>, “飯畢頽臥, 憊困殊甚, 渾身如經亂打, 不覺有痛聲, 乃自笑曰, 甚哉, 爾之癖於山水也, 孰使爾如此, 累自己作, 復誰怨尤, 因題一詩曰, 誰言壯觀好, 身苦更無比, 堪笑靈臺主, 自求快一時, 此身責心也. 又題曰, 非求快一時, 要見智仁術, 我苟淨私塵, 從知爾亦逸, 此心答身也.”

看如不看也堪羞”라고 하였다. 7언율시의 마지막 7~8구로, ‘어짚[仁]과 ‘지혜[智]가 유람에서 얻고 싶었던 것으로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인(仁)과 ‘지(智)를 유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시어로 사용하여 명확히 표출한 것은 김택술의 유람 한시 중 지리산 한시에서만 보인다. 화양동, 금강산 등을 이미 유람한 경험이 쌓이면서 유람에 대해 더욱 고민했던 마음이, 지리산 유람 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한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김택술의 명승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 근현대 유학자 유람의 단면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김택술의 3차례의 명승 유람과 시문 창작을 살폈다. 김택술은 1922년 화양동, 1930년 금강산, 1934년 지리산 유람을 떠났으며, 해당 유람에 대한 일기 <화양동유록>·<금강산유록>·<두류산유록>과 총 58수의 한시를 남겼다. 명승별 한시 수량은 화양동 6수, 금강산 20수, 지리산 32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문학적 형상화의 명승별 특징을 살폈다. 화양동은 조선 후기 대학자 송시열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으로, <화양동유록>과 6수의 한시는 송시열 경모(敬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금강산은 한반도 제일의 명승으로, 금강산 유람 중에 김택술은 각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보게 된 풍경을 묘사하고, 승려 등에게 적극적으로 묻고 듣게 된 것을 자세히 기록하며, 때로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금강산유록>은 세 편의 유람 일기 중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리산은 호남과 영남에 아울러 자리한 산으로, 김택술은 지리산에 가는 길에 순창 훈몽재, 남원 사계정사 등 인근 지역을 유람하고, 친척 방문과 성묘 등을 하여, <두

류산유록> 속 공간 및 경험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유람을 통해 ‘지혜[智]’와 ‘어짊[仁]’을 보려 한다는 것을 한시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기존 2차례의 유람 문학과 달랐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택술 명승 유람 문학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택술의 명승 유람 문학은 조선시대 명승 유람의 전통이 근현대인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일기를 통해 여행 당시 이동 수단, 근현대에 전해지던 설화 등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김택술의 명승 유람 문학은 근현대 다양한 유람 문학 작품을 발굴할 수 있게 한다. 김택술이 남긴 3편의 명승 유람 일기와 58수의 명승 유람 한시는, 근현대의 한문학, 기행문학, 그리고 지역문학이기도 하여 해당 분야 작품 발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화양동, 순창 훈몽재, 지리산 등은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갖춘 관광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풍성하게 하는 문학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김택술 명승 유람 문학은 일기와 한시가 모두 있어 유람 문학을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하여, 일기 서술을 바탕으로 한시의 적합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시로 작가가 중시한 유람 장소 파악이 가능하고, 일기에 해당 유람 장소에 대한 서술이 없는데 한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김택술이 유람한 지역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람 일기가 남아 있는 세 명승 화양동·금강산·지리산에 대한 김택술 문학만을 살펴보았다. 『후창집』에는 화양동·금강산·지리산 이외 지역의 유람에 대한 한시도 실려 있다. 이러한 작품을 함께 살핀다면 근현대 전 북 유학자의 평생에 걸친 유람과 유람 한시의 면모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근현대 유람 문학, 김택술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택술, 『後滄集』, 여강출판사, 1988.
- 김택술 저/황갑연 외 역, 『후창집』 1~8, 한국학호남진흥원, 2020~2023.
- 강동석, 「金澤述 詩에 있어서의 相衡的 意象과 그 涵意」, 『한국시가문화연구』 52,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223~249쪽.
- 강정화·황의열 편,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2016.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10, 민속원, 2016~2019.
- 김근호, 「후창 김택술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공자학』 47, 한국공자학회, 2022, 213~241쪽.
(DOI : 10.37300/GongJa.47.6)
- 김미선, 「근현대 전북 유학자 김택술의 일기와 그 의미」, 『전북학연구』 14, 전북학연구센터, 2025, 55~82쪽. DOI : 10.59592/JBST.2025.14.3
(DOI : 10.59592/JBST.2025.14.3)
- _____,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한민족어문학』 89, 한민족어문학회, 2020, 117~146쪽.
(DOI : 10.31821/HEM.89.5)
- _____,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 김부식 저/이병도 역,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2004.
- 김승룡, 「後倉 金澤述 한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론 - 擬古詩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5, 한국문학회, 2023, 63~93쪽.
(DOI : 10.16873/tkl.2023..95.63)
- 김유빈,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 - 「관조선사」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박순철, 「後滄 金澤述의 文藝論研究」, 『중국학논총』 46, 한국중국문화학회, 2015, 183~205쪽.
(UCI : G704-000855.2015..46.002)
- _____, 「後滄 金澤述의 學問과 思想」, 『유교사상문화연구』 36, 한국유교학회, 2009, 183~205쪽.
(UCI : G704-000855.2015..46.002)

- 박찬모, 「일제 강점기 지리산유람록에 대한 시론적 고찰」, 『남명학연구』 46, 경
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5, 261~298쪽.
(DOI : 10.14381/NMH.2015.06.30.46.261; UCI : G704-001230.2015.46.011)
- 배제성, 「‘생지위성’ 해석을 통해 본 간재학과 성리설의 특징 - 간재 전우와 후
창 김택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6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3, 55
~83쪽. DOI : 10.18216/yuhak.2023.65.003
(DOI : 10.18216/yuhak.2023.65.003)
- 신상후, 「간재 기철체청설의 계승과 발전 - 후창 김택술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6, 한국철학사연구회, 2023, 37~73쪽. DOI :
10.35504/kph.2023.76.002
(DOI : 10.35504/kph.2023.76.002)
- 엄찬영, 「『관조선사』에 나타난 김택술의 역사관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79, 한
민족문화학회, 2022, 305~330쪽.
(DOI : 10.17329/kcbook.2022.79.79.010)
- 이상균, 「조선시대 士大夫의 山水遊觀과 九曲遊覽」, 『영남학』 27, 경북대학교 영
남문화연구원, 2015, 369~400쪽.
(DOI : 10.36034/yncdoi.2015.27.369; UCI : G704-002018.2015.27.008)
- 임근실, 「조선후기 華陽書院의 건립과 『華陽誌』 편찬의 의미」,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333~362쪽.
(DOI : 10.30594/kss.2023.12.17.10)
-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96, 25~43쪽.
-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6, 보고서, 2013.
- 함영대,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과 대처 - 20세기 유교 지식인의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논리」, 『한문학보』 49, 우리한문학회, 2023, 101~138쪽.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소개 - 일반 현황 - 위치와 면적」,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4000000)
검색일 : 2025. 2. 7.
- 호남국학종합DB(<http://db.hiks.or.kr/>) 검색일 : 2025. 2. 1.

| Abstract |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Scenic Site Travels by Kim Taek-sul, a Confucian Scholar in Modern North Jeolla

Kim, Mi-sun

Chonnam Univ. Lecturer.

This study explores the scenic site travels and literary representations of Kim Taek-sul, aiming to shed light on the travels of Confucian scholar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Chapter 2 explores the records and literary works related to Kim Taek-sul's journeys. He traveled to Hwayang-dong in 1922, Mt. Geumgang in 1930, and Mt. Jiri in 1934, leaving behind travelogues titled Travel Record of Hwayang-dong(Hwayangdong Yurok), Travel Record of Mt. Geumgang(Geumgangsang Yurok), and Travel Record of Mt. Jiri(Duryusan Yurok), along with a total of 58 classical Chinese poems(han-si) inspired by these trips. The number of poems per destination was 6 for Hwayang-dong, 20 for Mt. Geumgang, and 32 for Mt. Jiri.

In Chapter 3,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representation for each scenic site. Hwayang-dong, known as a place associated with Song Si-yeol, a renowned Confucian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is depicted in Travel Record of Hwayang-dong(Hwayangdong Yurok) and the accompanying Chinese poems with a strong focus on the

author's reverence for Song Si-yeol. Mt. Geumgang, regarded as the foremost scenic site on the Korean Peninsula, drew Kim Taek-sul's active engagement at each location during his journey. As a result, the Travel Record of Mt. Geumgang(Geumgangsang Yurok) contains the most extensive content among the three travelogues,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themes. Mt. Jiri, situated across the Honam(Jeolla) and Yeongnam(Gyeongsang) regions, is portrayed with a broadened spatial and experiential scope. On his way to Mt. Jiri, Kim Taek-sul visited nearby areas such as Hunmongjae in Sunchang, met relatives, and performed ancestral rites. This expansion of experience is reflected in the Travel Record of Mt. Jiri(Duryusan Yurok). Moreover, in his Chinese poetry, Kim expressed a desire to perceive the Confucian virtues of wisdom(智) and benevolence(仁) through his journey.

The significance of Kim Taek-sul's travel literature on scenic sites can b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First, his writings demonstrate how the tradition of scenic site travel from the Joseon dynasty continued into the modern era, particular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cond, they contribute to the discovery and reassessment of various travel literature works from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Third, because both travel diaries and classical Chinese poems are preserved, his works allow for a more multi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travel literature.

Key words : Kim Taek-sul, scenic site travels, Collected Works of Huchang(Huchangjip), Hwayang-dong, Mt. Geumgang, Mt. Jiri